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내 속에 하나님의 착한 일 [빌립보서 1:3-8]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6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에서 바울은 박해받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1:3). 빌립보 성도들에게 임하고 또 그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선한 이유로 인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할 이유가 넘쳐나십니까? 이러한 기쁨의 기도들과 묵상을 바탕으로 한 확신*** 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6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6).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4 두아디라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14). 우리의 구원 —이 세상이 태동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길 작정하시고 구원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4). 하나님께서 마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신 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 분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일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28-29). 오늘 설교본문 1:6에 사용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은 함축된 언어로 이것을 풀어쓴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일의 마무리 하실 것입니다.*' 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은 구원의 결과로 보장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실히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6).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통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불완전한 것들, 실패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또 그분의 공급하심 속에 확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억합니다. 구원은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일이란 것을 확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보일 때 결과물처럼 주어지는 확신에 안주하거나 만족하게 하지 않게 합니다. 이 확신은 우리를 게으르게 않게 하고 복음으로 인한 우리 삶에 헌신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증거가 되게 합니다. 이 확신은 또한 우리가 개별적으로 떨어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 서로의 기도와 섬김이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이루신 착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확신합니다.